

'지속가능 생태도시' 탈바꿈

익산시, 왕궁·장점마을·낭산 등 환경 훼손지역 청정 복원 가속

2437억 투입 왕궁생태복원 에타 순항·장점 기억의 숲 내달 준공 등

익산시가 과거 환경오염으로 얼룩졌던 훼손 지역들을 푸른 생태계로 되살려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생태 치유 도시'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왕궁 자연환경 복원과 장점마을 도시생태축 복원, 낭산 폐석산 사후관리 등 시의 핵심 친환경 정책 성과와 미래 청사진을 발표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 곳은 새만금 상류의 심각한 수질오염과 악취의 온상이었던 왕궁정착농원이다. 정부와 익산시는 2011년부터 총 17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1만3,000마리의 폐지를 감축하는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을 2023년 최종 마무리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환경부, 전북

자치도와 손잡고 무려 182만㎡ 규모에 총사업비 2437억원이 투입되는 '왕궁 훼손생태복원사업'을 기획했다. 이 사업이 지난해 10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생태와 문화 치유가 공존하는 익산형 K-에코토피아 조성을 위한 대장정의 길이 열렸다.

잡단 암 발생이 발생했던 합다 장점마을(옛 금강농산 비료공장 부지) 역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시는 총 57억 원을 투입해 훼손된 농경지와 공장 부지를 생태습지와 '기억의 숲', 탐방로로 바꾸는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다음 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그간 주민지원 대책과 위로금 등으로 2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데 이어, 치료비 지원 등 주민의

아픔을 닦아내는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목천포천과 용기리 일대의 생태축 복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과거 불법 폐기물 매립 사고가 발생했던 낭산 폐석산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시는 2024년까지 5차례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28만9,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한 데 이어, 올해에는 1만2,000톤의 침출수 처리를 위한 추가 행정대집행을 단행한다.

아울러 침출수 확산방지를 위한 차수 매트 복개와 연직차수벽 설치 등 발생 원인 차단 중심의 강력한 사후관리 용역도 추진하고, 과거 유출로 오염된 하부 지역 토양과 지하수까지 완벽히 정화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준 기자



익산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최한 '기록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6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익산, 국가기록관리 '대통령 표창'

시, 기록의 날 기념행사서 영예... 전국 기초지자체 '유일'

익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해 온 묵보적인 역량을 인정받아 정부가 수여하는 기록관리 분야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품에 안았다.

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최한 '기록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6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은 대한민국 기록관리 발전과 기록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올해 포상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곳은 익산시가 유일하다.

시는 시민이 직접 동네의 역사와 생활상을 기록하는 생산자이자 보존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기록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의 일등 공신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옛 익옥수리조합 건물을 도시재생으로 살려낸 '익산시민

역사기록관'이다. 2024년 12월 개관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누적 방문객 2만 명을 돌파한 이곳은, 전시와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현재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필수 벤치마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기록관 개관 전부터 민간 기록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2020년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기록물 수집 공모전, 시민기록활동가 양성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어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귀중한 민간 기록물을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디지털 이야기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또한 2024년 신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최고 수준의 전문 보존 서고를 구축하고 공공기록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아울러 구청사의 행정 역사와 공간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기록 보존하는 등 공공과 민간 기록 모두에서 빈틈없는 관리 능력을 증명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익산시, 쾌적한 '환경 체감 도시' 도약

고질적인 악취 문제 강력한 저감 대책으로... 5년 새 악취 민원 40% 대폭 감소

익산시가 과거 지리적 특성으로 겪어온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과학적인 행정과 강력한 단속으로 해결하며 쾌적한 환경 체감 도시'로 당당히 도약하고 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도심 주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지리)가 있고 외곽에는 대규모 축산단지가 지리 잡은 익산은 그동안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2020년에는 악취 민원이 3,636건에 달하며 정점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익산시가 명예를 걸고 강력한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관련 민원은 2,047건으로 2020년 대비 약 40%나 대폭 감소하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인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도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시는 민원 대응 방식에 첨단 과학 기술을 도입했다. 산업단지와 축산농가 등 주요 지점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비파괴적 복합 악취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모바일 앱인 '익산오취24'와 연동돼 시민 누구나 값을 확인할 수 있고 악취가 나면 즉시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비파괴 방향을 역추적해 발원지



를 찾아내고 현장을 확인해 신속하게 악취를 차단한다.

또한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악취 측정장비를 도입해 사업장별 악취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인접한 전주, 김제, 완주군 등과도 악취 저감 협업체를 구성해 지자체 경계를 넘어선 상시 협력 체계까지 튼튼하게 다졌다.

취약 시대에 이과와 새벽의 감시망도 촘촘해졌다. 악취관리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해마다 5월부터 10월까지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축산악

취 감시망을 가동해 공백 없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방지시설을 제대로 돌리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행정처분을 내려 시설 개선을 이끌어냈다. 2020년부터 총 1,917개 사업장을 점검해 벌을 위반한 198개 업소의 시설 개선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위반 사업장은 2020년 61건에서 2025년 13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이외에도 시는 노후 사업장의 악취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으로 총 4억 5,000여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5년부터는 음식쓰레기 세탁소 등 골목길 생활 악취 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러한 선진 행정은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제 조사 결과로도 증명되며 복합악취 농도가 뚜렷하게 떨어졌음을 확인했다. 이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익산의 악취 행정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설 개선 유도과 철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맑은 공기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군산시는 지난 9일 군산 비응항 일원에서 시민과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갭토리의 날 선포식'을 열었다.

군산시, '갭오징어 도시' 선포

매년 5월 31일 '갭토리의 날' 지정... 이달 9일 선포식 개최

군산시가 전국의 내로라하는 수산 도시들을 제치고 대한민국 최초의 '갭오징어 도시'로의 도약을 전격 선언했다. 단순한 먹거리 수준에 머물렀던 갭오징어를 문화와 관광, 콘텐츠가 융합된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군산시는 지난 9일 군산 비응항 일원에서 시민과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와 함께 하는 갭오징어 총지방류 체험 및 군산 갭오징어 갭토리의 날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의 대표 수산물인 갭오징어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첫걸음으로, 수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학계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군산 갭오징어의 브랜드 비전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으로 문을 열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군산갭오징어의 새 일

굴, '갭토리아'이 최초로 공개돼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행사에서는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의 사업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어업인과 수산자원기관 대표가 함께 '갭토리의 날' 선포문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군산시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매년 바다의 날인 5월 31일을 '군산 갭오징어 갭토리의 날'로 지정·선포하고, 매년 지속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펼쳐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섰다. 어린이들은 고디타분한 이론 교육 대신 갭오징어를 비롯해 낚치, 조피볼락 등의 종자를 직접 바다에 방류하며 수산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 제조현장에 AI를 입히다... 주력산업 AX 혁신 본격화

시, 군산대 등과 협약 체결

군산시가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의 제조 AX 혁신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제조업의 AI 전환 추진에 나선다.

군산시는 10일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 군산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군산 주력산업 제조 AX 혁신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산의 대표 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 중소기업의 AX(AI Transformation) 도입을 촉진해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기관·연구소·대학이 연계된 협업체를 통해 현장 수요에 밀착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군산 주력산업 제조 AX 혁신을 위한 협업체 구축 △AX 도입 희망기업 대상 교육·진단·컨설팅 등 맞춤형 연계 지원 △제조현장 AX 아카데미, 카바넷 등 현장역력 AI 리더십 강화 △AX 적용 제품의 성능 검증·인증 등 시 실증 지원 등이다.

군산시는 2025년 산업통상부 주관



군산시는 10일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 군산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군산 주력산업 제조 AX 혁신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X 실증단지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52억원(국비 140억원 포함)을 확보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선·해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공정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AX 실증단지 사업과 연계하여 기업 발굴부터 진단·컨설팅, 실증,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까지 협력 범위를 넓힘으로써 군산 제조업의 AX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중소기업 AX 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

담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X 협력 생태계 조성과 정책 연계를 지원한다. 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은 제조 오존랩 기반 실증과 데이터 수집,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역 맞춤형 실무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AX아카데미 및 현장 컨설팅,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동차 분야 AX 전환 기술지원과 사업화 연계 등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스마트테크코리아 2026 참가... 첨단기업 투자유치

군산시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기술 전문 전시회인 '스마트테크코리아 2026'에 참가해 투자유치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스마트테크코리아 2026'에 참가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군산시의 투자환경을 홍

보하고,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행사기간 동안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기업지원 제도,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소개하고 투자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한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 박차

익산시의회가 제10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오늘 15일부터 18일까지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5명의 당선인들의 의원등록이 이뤄지며, 28일에는 당선자 간담회를 개최해 의회현황, 의사일정 등을 안내하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제278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치르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그리고 오후에는 개원식을 갖고 제10대 의회의 포문을 연다.

이어 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치르고 전반기 위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익산=이재준 기자

군산시, 수제맥주축제서 참흥어 메뉴 선보여

군산시가 오는 12~14일 열리는 '2026 군산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에서 지역 대표 수산물인 '군산 참흥어'의 브랜드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풍성한 마케팅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군산참흥어(서해근해연승연합회) 단체가 직접 먹거리 부스에 참가한다. 부스에서는 군산 참흥어를 활용한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판매 메뉴는 오직 군산에서만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참흥어구이 스테이크' & 칩스 스테이크무침 참흥어회 등 총 4종이다.

특히 대표 메뉴인 '참흥어구이' 등은 지난해 동일 행사 당시 축제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절친리에 전량 매진(완료)을 기록한 바 있어, 올해도 맥주 축제를 앞둔 식도락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호남권 대표 기본사회 우수사례 발표

군산시가 전담조직 신설부터 시민참여 체계 구축,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까지 단계적 추진체계를 차근차근 갖추어온 전국 지방정부 기본사회 추진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는 10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기본사회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 호남권 대표 우수사례 발표 지자체로 참여했다. 워크숍에는 호남권 광역·기초 지방정부 기본사회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군산형 기본사회 추진 성과와 추진 과정, 향후 발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시는 대표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무상교통 △찾아가는 동네문화학교 △공공부담수 공공 학습플랫폼 △공공분야 어린이 병원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시민생애주기별로 연결하는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출범한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은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로, 돌봄체계, 이동권보장, 청년 주거지원 등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